

지역 소식통

김제 검산동, 경로당 순회방문 실시

김제시 검산동은 연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경로당 24개소에 대한 순회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경로당 방문은 어르신들이 매일 이용하는 경로당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생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했다.

김윤수 동장은 폭염예방을 위한 건강수칙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경로당 운영현황 및 어르신들의 생활불편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 낮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해 줄 것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경로당을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꾸더운 날씨에 시와 동에서 관심을 갖고 애어른 등 방문기를 지원해 준 덕분에 경로당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성덕면, 효 한마당 잔치 준비

김제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양경철)는 지난 10일 성덕면 복지회관 2층에서 주민자치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오는 9월 5일 열릴 '효(孝) 한마당 잔치'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행사준비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50분 가량에 걸쳐 행사장 배치, 음식메뉴 선정, 어르신 이동반 구성, 분야별 준비사항, 참여단체 확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계획을 확정하고 위원들의 분야별 담당업무가 주어지는 등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성덕면 효(孝) 한마당 잔치는 어려웠던 시절 현실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어르신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위로를 전하는 문화 및 봉사 행사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9. 5일에 성덕면 300여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성덕면사무소 앞마당에서 진행된다.

세부프로그램을 보면 문화행사로 는 전통악공연, 가수공연, 노래자랑 등을, 풍속행사로 는 육개장정식, 탕수육 등을, 전문봉사로 는 한방의료봉사, 귀반사, 네일아트 등을 추진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동이 안전한 완주 만든다

군-굿네이버스-현대자동차전주공장, 업무협약 체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아동이 안전한 완주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

11일 완주군은 굿네이버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이 안전한 완주만들기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김경환 굿네이버스 전북본부장, 문정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 안주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 의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완주군은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아동이 안전한 완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현대자동차가 후원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완주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아동이 안전한 완주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

전색 신호등 교체, 공공화장실 안전벨 설치 등 아동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아

동과 함께 지역사회 안전문화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아동안전의 중요성을 경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완주군에 사회공헌기금 전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문정훈) 노사가 어린이가 안전한 완주 만들기 위해 완주군에 사회공헌기금 4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회사는 11일 완주군수실에서 문정훈 공장장과 안주열 노조 전주공장 위원회 의장, 박성일 군수, 김경환 굿

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가 안전한 완주 만들기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어린이가 안전한 전라북도 만들기란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상처 입고 교통 방지 않도록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아동 범

죄와 학대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는 데 목적을 둔 사회공헌사업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는 이를 위해 완주군, 굿네이버스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모아 봉사초등학교 등 관내 4개 학교 앞과 봉동 생강골공원 등 6개 공원에 안전색 신호등과 안전 블루벨 설치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사랑장학재단 10주년 기념식 개최

제2의 도약 위한 비전 공유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지난 11일 재단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식 이사장, 김중회 국회의원, 나병문 시의회 의장, 장학재단 임원, 기관장, 향우회원 등 300여명의 내빈과 시민이 참석하여 김제사랑장학재단이 걸어온 10년의 성과를 확인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먼저 조종현 재단 상임이사가 경과 보고를 통해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한 장학재단 10년의 성과를 보고했으며 재단의 장학사업을 통해 관내고등학교 진학률이 재단 설립 초기 60%대에서 70%대로 상승하는 등 김제지역의 교육경쟁력이 강화된 것을 큰 성과로 들었다.

이어서 장학재단 성장에 기여를 한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지난 11일 재단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개인, 단체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하고, 백만원 이상 장학기금을 후원한 986명의 이름을 현액한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거행했다. 각계 각층의 소중한 정성이 모여 인구 1인당 33만원의 김제사랑장학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이

는 기초자치단체 최고 수준으로 현재 295억원이 조성되어 있다. 재단은 앞으로도 소중한 정성을 보낸 후원자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명예의 전당을 관리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서울 송의여대와 해피통통 불런투어

김제시 봉사·여행 함께하는 1석 2조 프로그램 진행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동안 '서울 송의여자대학교와 함께하는 해피통통 불런투어'를 진행했다.

불런투어는 자원봉사(Volunteer)와 여행(Tour)이 결합한 신개념 봉사활동으로 봉사의 기쁨과 여행의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1석 2조의 프로그램이며,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김제시를 방문한 서울 송의여자대학교 30명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3개 기관(중부지역아동센터, JG작은도서관, 푸른꿈지역아동센터)에서 「꿈이 있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여름캠프」란 주제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불런투어는 크게 3가지 부

문(교육봉사활동, 체험활동, 김제시 투어)으로 일정을 구성하였다.

아이들과 다양한 놀이를 통해 집중력·활동력·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 쌀꾸기와 책꽂이를 만들어 지역아동들에게 전달하고, 몽당크레파스를 재활용하여 새 크레파스를 만들어 해외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체험과 봉사가 결합된 체험형 봉사활동 그리고 김제시의 주요명소인 벽골제와 새만금 33센터를 둘러보는 투어가 주된 활동내용이다.

불런투어에 참여한 송의대 학생은 봉사과 여행을 함께하는 불런투어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주변 관광도 덩어로 할 수 있어 매우 즐거웠다면서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후천 김제부시장, 지평선축제장 현장점검

김제시 이후천 부시장은 지난 11일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의 글로벌축제 도약을 위한 사전 준비태세 점검을 위해 주 행사장인 벽골제 주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40일 앞으로 다가온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 개막에 앞서 지평선축제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여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각 보완 조치토록 지시했다.

또한 이날 현장에 참석한 7개 부서 11개 담당에 대한 노고 치하와 함께 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는 9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김제시 벽골제 및 시내권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는 'Beyond Korea, Global Gimje Horizon Festival'을 슬로건으로 5개 분야 55개 프로그램을 확정하였으며, 가장 한국적인 주제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다' 연출을 통해 세계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육성축제로 준비되고 있다.

한편 이후천 김제시 부시장은 "대한민국 최초·최고인 대표축제에 걸맞게 관광객이 편안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축제장의 완벽한 마무리와 더불어 사고예방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성공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A large promotional banner for the Sunchang Ganchusan Festival. It features scenic photos of waterfalls, a road through a forest, and a rocky stream. Text includes '떠나자 맑은 물과 푸른숲이 있는 순창 강천산으로...', '순창의 참종다', and '제12회 순창장류축제 2017.10.20(화)~10.22(목) 3일간'. It also lists sponsors like '순창의 전통김(김) 세백인의 일출소스(SAUCES)' and '순창진통고추장민속마을'.